

제 6 과. 당신은 원하는 바를 만든다! - 소명의 예전

You Make What You Want! – Vocational Liturgies



성경: 계 21:1-8

찬양: 찬 299 장/하나님 사랑은, 복음송/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기도: 하나님이 오늘 모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 연구 & 나눔 (Bible text study & sharing)]

1. 창 1:26-28 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내 표현과 말로 함께 나누어 보자? Let’s share the meaning of ‘the image of God’ in Genesis 1:26-28 through my own expressions and words.
2. 창세기 1 장 & 2 장에 나오는 창조의 원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 장 & 22 장의 말씀으로 회복된다. 본인과 연관되어서 회복되고 싶은 창조의 모습은 무엇일까? (건강, 성품, 가정, 첫사랑의 신앙, etc.)
The original appearance of creation in Genesis chapters 1 & 2 is restored through the words of Revelation chapters 21 & 22. What is the form of creation that you would like to recover in relation to yourself? (Health, character, family, faith in first love, etc.)

I.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명의 세계이다.

The world we live in is a world of mission.

1. 성경의 창조 교리는 우리의 근원에 관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 상황에 관한 교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관한 교리이기도 하다. 우리의 과거에 관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미래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이 세상은 그저 '자연'이 아니라, 창조세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아주 좋은 거처다.

하나님께 창조세계는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The Bible's doctrine of creation is not only a doctrine about our origin, but also a doctrine about our present situation. It is not only a doctrine about who we are, but also a doctrine about who we belong to. It is not only a statement about our past, but also a call to the future. This world is not just 'nature', but a created world. It is a very good dwelling place created by our Father in heaven. To God, creation is not an unpleasant and regrettable mistake. Rather, it is a work created by His love.

2.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성육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동네로 찾아오신다.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으신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계시록 21 장에서 마무리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세계에서 내쫓지 않으신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내려 오신다.

The Word becomes flesh through incarnation in this world created by God, an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comes to our neighborhood. The infinite and transcendent God takes on a body like us. This whole story ends in Revelation chapter 21. God does not expel us from creation. He comes down to live with us in the new creation.

3.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르심임을 깨닫는 것이다. 성령은 당신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셨으므로 창조세계는 우리를 부르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방이요, 그 자체가 초대장이다.

Understanding the world as God's creation means realizing that living in the world itself is a calling. Creation is a gift that calls to us because the Holy Spirit has given you ears to hear and eyes to see. It is a room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and it itself is an invitation.

1)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은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적 속성 (의지든, 이성이든, 언어든, 혹은 당신이 지닌 무엇이든)이 아니다. ‘이마고 데이’는 지구의 자원과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능력을 부여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인간의 왕적 직분이나 부르심을 뜻한다.

You are called to reflect the image of God. The ‘Image of God’ (‘Imago Dei’) is not an essential attribute of ‘Homo sapiens’ (whether will, reason, language, or whatever you have). ‘Imago Dei’ refers to the royal office or calling of humans to serve as God’s mouthpiece and representative in the world by being given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God’s work of governing and managing the earth’s resources and creation.

2) 당신은 창조세계의 잠재력을 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 1:28-30 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의 책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재미있는 부분!), 땅을 ‘가꾸는’ 것,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창조세계는 매우 선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세계에 두시고, 그분이 창조세계 안에 접어 넣어 두셨던 잠재력을 꺼내고 펼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위임하셨다.

You are called to unleash the potential of creation. In Genesis 1:28-30, our responsibility as image bearers of God is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he fun part!), to ‘tend’ the earth, and to ‘rule’ creation. Creation is very good,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perfect. God placed us in creation and told us to unleash and unfold the potential he had placed within creation. He delegated that very task to us.

3) 당신은 창조세계를 차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동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창조세계를 차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상에 상기시키는 독특한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You are called to take over creation. To carry out our mission today, we must bear witness to the fact that something is wrong. We must admit that we no longer live in the Garden of Eden. Therefore, the body of Christ is called to be a unique people who occupy creation and remind the world that it belongs to God.

II. 속박 (예전에 대한 다른 명칭) 이라는 선물

The gift of Constraints

1. 우리 모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바라는 제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기꺼이 제거하고 싶은 여러 양상을 지닌 정책과 절차와 물리적 환경의 상속자들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설립자와 역사적 조직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속박에 대해 분노할 때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곧 백지 상태에서 그 조직을 '다시 상상하는' 것을 꿈꾸곤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속박은 멧돌, 혹은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자꾸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닻과 같다. 이런 속박을 선물로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 전해져 내려온 전통의 속박을 창의성과 상상력을 위한 촉매제로 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We all live in institutions we wish were different, especially the church. We are the inheritors of policies, procedures and physical environments, many of which we are willing to get rid of. There are times when we feel angry about the constraints imposed on us by founders and historical organizations who know nothing about the difficulties we face today. Everyone dreams of being free from this bondage, of 'reimagining' the organization from a blank slate. However, in the real world, this bondage is like a millstone or a heavy anchor that keeps pulling us down to the bottom as we try to move forward into new seas. Can't we imagine this bondage as a gift? Wouldn't it be possible to use the constraints of handed down tradition as a catalyst for creativity and imagination?

2.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도 교회의 예배라는 전통과 영적 훈련의 리듬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제약이라는 선물 안에서 가장 번성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예전에서 해방을 발견하고 전례를 통해 갱신에 이를 수도 있다.
- What we do every day may flourish best within the gift of constraints handed down to us within the traditions of church worship and the rhythm of spiritual discipline. We may find liberation in the liturgy and reach renewal through it.

Ⅲ. 결론 - 부르심의 예전 Conclusion – Vocational Liturgies

1. 우리는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온전함과 독립성,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지닌채 그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 We must understand our calling as a way to pursue God with ‘integrity, independence, and Christian boldness.’
2.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도록 ‘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 쪽으로 우리를 끌어 당기시는 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인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를 추구한다.
- God is not only the one who ‘pushes’ us into existence, but he is also the one who pulls us towards himself. God not only drives us, he entices us. We pursue what we love.
3. 골 3:12-17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랑은 실천과 반복을 통해 자라는 사랑이며, 우리가 소명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품에 스며들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우리 본성의 일부로 만드는 의례와 리듬과 실천에 몰입해야 한다. 예배는 ‘주중에 하는 일’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의례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하게 한다. 따라서 예배를 마치고 일터로 보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습관으로 형성된 지향성을 지닌 채 우리의 일을 한다.
- As Colossians 3:12-17 says, the love that draws us to God is a love that grows

through practice and repetition, and if we want to pursue God through vocation, we must let God's love permeate our character and We must immerse ourselves in the rituals, rhythms and practices that make love a part of our nature as well as our way of thinking. Worship is not an escape from 'what we do during the week.' The rituals of worship train our hearts and direct our desires toward God and His kingdom. Therefore, when we finish worship and are sent to work, we do our work with an orientation formed as a habit toward the One who loves our souls.

4. 우리는 주중에 이 사랑을 유지해 주는,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 '소명의 예전'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제네바시에 대한 장 칼뱅의 전망이었다. 그는 수도사와 '종교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거룩한 일을 하는 푸줏간 주인과 제빵업자, 양초 제작자 모두를 위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와 시편 찬양의 리듬이 온 도시를 지배하기를 바랐다.

We should also think about the 'rites of vocation', the habit-forming practices that sustain this love during the week. This was Jean Calvin's vision for the city of Geneva. He wanted the rhythm of morning and evening prayers and psalms to dominate the city, not only for the monks and 'religious' people, but also for the butchers, bakers and candle makers who did equally holy work.

IV. 함께 축복하기 Blessing Together

1. 지금까지 함께 한 속도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
Let's take time to bless the members who have been with us so far.
2. 연속으로 모이는 속회 중에 변화되거나 응답 받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자!
If there are any changes or answers you receive during the series of group meetings, let's share them together!